

매년 여름에 찾아오는 '폭염'

온열질환자 최근 5년 평균보다 2배 ↑

'이달 말부터 8월 중순에 집중' 올해 685명 중 81%가 7월 중에 발생... 4명은 사망 8월엔 70대 이상 고령자 온열질환 피해비율 높아져

전국적인 폭염으로 올 여름 온열질환자가 최근 5년 평균보다 9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보다 47% 급증했다.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온열질환자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수(매년 7월 22일 기준)는 2012년 231명(사망 3명), 2013년 411명(2명), 2014년 348명(1명), 2015년 276명(0명), 2016년 466명(3명), 2017년 685명(4명)으로 집계됐다.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자 685명 가운데 552명(81%)이 7월 중에 발생했고, 이 중 4명은 발열이나 아열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피해를 극심했던 지난해 온열질환자 발생장소를 보면 작업장 38%, 논·밭 19%,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길가 12%, 운동장(공원) 8% 순으로 주로 실외에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50대(24%)와 40대(16%)가 많았고, 오전 10시~오후 1시(21.9%)와 오후 2시~5시(33.7%)에 주로 발생했다. 8월은 7월에 비해 70대 이상 고령자의 온열질환 피해비율이 높아지고 강·해

변 등 휴가지에서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온열질환자 1287명(지난해 온열질환자의 60.6%)과 사망자 7명(지난해 사망자의 41.2%)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와 지자체에서는 7~8월 폭염피해에 대비해 도로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민·관 협력 예방 홍보활동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 관련 신고제와 지역 자율방재단 무더위쉼터 전담제를 통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적십자사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활동에도 나선다. 류희인 안전처 차관은 "비가 오지 않는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온열질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7월 말부터 8월까지는 외부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고 자주 물을 마시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환자전자의무기록(EHR)을 부작용 분석 공동데이터 모델(CDM)로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앙대 등 5개 병원 20만명 환자 의료정보를 'CDM'으로 전환해 추가하고 향후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약품안전센터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의 30만명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CDM'으로 전환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바 있다. '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하여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보공단·심평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왔으나 보험청구 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치료 등이 누락돼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CDM을 활용한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부작용 발생 시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부작용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등을 제공해 임상시험이나 유통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이번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눈다래끼, 10~2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

불량한 눈 위생 상태 · 스트레스 반복 노출이 원인

10대 20만명 · 20대 20만4000명... 계절별 여름철에 가장 많아

눈다래끼가 10~20대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량한 눈 위생 상태, 스트레스 상황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눈다래끼'란 눈꺼풀에 존재하는 마이봄샘이나 짜이스샘에 발생한 급성 세균감염이며, 마이봄샘에 생기면 속다래끼, 짜이스샘에 생기면 겉다래끼라고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눈다래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2011년 167만4000명에서 지난해 172만2000명으로 연평균 0.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는 2011년 842억원에서 지난해 981억원으로 연평균 3.1%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눈다래끼 성별 진료인원은 남

성 71만명, 여성이 101만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30만18000명, 17.9%) 환자가 가장 많았고 20대(30만3000명, 17.6%), 30대(29만1000명, 16.9%) 순이었다. 남성은 40대(12만1000명, 17.0%) 30대(11만8000명, 16.6%), 10대(10만7000명, 15.1%) 순이었고 여성은 20대(20만4000명, 20.2%), 10대(20만명, 19.8%), 30대(17만3000명, 17.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여성은 10대가 792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351명, 10대 5286명 순이다. 남성은 9세이하에서 4224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3900명, 30대 2972명 순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

는 "20대 여성은 본인의 외모에 제일 관심이 많을 때로 이로 인해 빨리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기 치료를 위해 일찍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10대 여성의 경우는 아직 위생 관념이 많지 않아 손 청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량한 눈 위생 상태, 스트레스 상황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잘 낫지 않고 재발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여름철인 7~8월에 환자가 가장 많았고 8월에 417명, 7월 301명, 9월 382명 순이었다. 박 교수는 "눈다래끼는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굳이 계절적 요인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고 이로 인해 개인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바른 '눈다래끼' 예방법은?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 손 위생 청결해야"

눈다래끼 증상은 크게 겉다래끼와 속다래끼로 나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겉다래끼는 초기 발적과 소양감(가려운 느낌)이 있다가 곧 붓고 통증이 생긴다. 속다래끼는 겉다래끼보다 깊게 위치해 초기에는 결절이 만져지지 않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붓고 통증이 생긴다. 눈꺼풀 가장자리 피부 밑에서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겉다래끼는 속다래끼와 겉모습은 비슷하나 발적과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눈다래끼 질환의 진단·검사, 육안적 관찰과 세균 등 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진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균배양 검사는 하지 않는다. 눈다래끼 질환은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 치료 없이 완치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면 항생제 안약을 넣고



내복약을 복용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로 그 부위를 절제 병변을 긁어내는 시술을 받기도 하며 병변내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눈다래끼는 주로 세균감염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항상 손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에는 안검의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떠나자

맑은 물과 푸른숲이 있는 순창 강천산으로...

강천산 병풍폭포

메타세콰이길

장군목

순창의 참종다(茶)

순창의 전통장(醬), 세계적인 일류소스(SAUCE)

제12회 순창장류축제

2017.10.20(금)~10.22(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